대승불교 사상과 대행선 접점 모색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제 4회 학술대회 개최

안양본원서 사부대중 100여명 참석
사회적거리두기 준수, 유튜브 중계
대행선 방향 모색한 6편 논문 발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행선사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불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11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불교사상과 대행선사상'을 주제로 제4회 대행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서는 대승불교사상과 대행선사상의 접점 및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상 발현을 논하는 법석이 펼쳐졌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2~5층으로 분산돼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등 100여 명만이 참석했다. 대회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부대중을 위해 대행선연구원측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에 대중들의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대행선사상의 학술연구에 매진해 준 학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현대사회는 대행선사께서 말씀하시는 정신계와 물질계를 비롯해 전 우주와 전 인류,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야 하고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가장 빠른 길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내는 것이다. 나에게 닥친, 온 인류에 닥친 재난을 내 주인공 자리에 놓고 굴려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정진의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인류가 불안감에 떨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분산되어 진행됐으며 유튜브로도 중계됐다.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도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6월 대회보다 미뤄진 일정을 설명하며 대행선연구원의 행보가 앞으로 대행선사상의 현대적 가치 발견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날 발제자 중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조사선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행의 선사상' 발표를 통해 "대행선은 현대화된 조사선으로 현대 한국 조사선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먼저 조사선과 대행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조사선의 가장 큰 특징은 본각, 혹은 본래성불에 있으며 수증론은 돈오성불과 닦음이 없는 닦음인 무수지수로 요약된다"며 "임제에 이르면 조사선은 사람의 문제에 집중되고, 제자들에 향한 제접법은 할, 방, 끽다거, 침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조사선과 대행선은 크게 보면 동일하지만 작게 보면 차이를 드러낸다. 먼저 기존 조사선과 차이를 드러내고 독자적인 선풍이 있다는 점에서 조사선적인 풍미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학자 입장서 대행선이 낯설어 보이는 것은 조사어록과 등록 등에 나타난 조사어가 아닌 일상 언어로 표현되는 점과 현대인을 대상으로한 특유의 관법, 언어 구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대행 스님의 어록을 근거로 스님의 선풍 전개를 분석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근본으로 보면 대행선은 본래성불과 무수지수 등 조사선 핵심사상을 계승했다. 조사선의 입장은 완전무결한 본래의 나가 누구에게나 이미 갖춰져 있다고 본다. 조사선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 참나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에 대해 대행선사 또한 본래성불을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선의 전통을 묵수적으로 계승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선풍으로 전개한 것"이라고 규명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2부 '법화 · 정토 사상과 대행선 사상', 3부 '유식 · 총지선 · 조사선 · 화엄 사상과 대행선 사상',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금강경 독송 대회 열린다

코로나극복을 염원하는 'ONTACT' 2020금강경 독송정진이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 산하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은 12월 12일 오후 2시 비대면 온라인소통 대국민 희망 프로젝트 '2020금강경 독송정진, 10만 수보리의 합창'을 개최한다.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수보리 합창은 전국 108개 사찰신도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금강경〉 독송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50명 이내가 참여하며 108개로 분할된 화면으로 서로 소통하며 이를 중계한다.

메인행사로는 전국 108지역 참여단의 온오프라인 입장과 미디어타악 'will U'의 식전공연,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환영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치사, 사진전, UCC 대상 수상자 시상, 비대면 청정수 합수식, 5개 대표지역 네트워크 구성 선언, 지역대표들의 코로나 극복 기원문 낭독,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 등 전국 108개 사찰 신도들의 10만 수보리의 〈금강경〉 독송 등으로 진행된다.

축하공연으로는 봉은사국악합주단의 국악합주, 지역공연단의 공연과 트롯가수 송가인, 김경민 씨의 노래, 테너 석인모 씨의 국악콜라보 공연 등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경주 황룡사지서 금동봉황 자물쇠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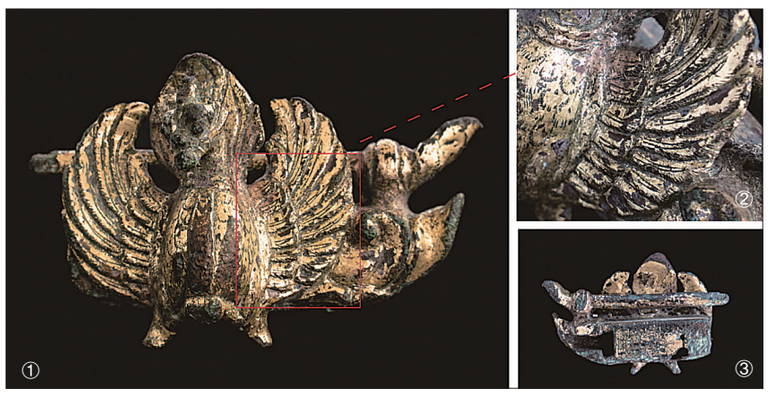
국립경주문화재硏 결과 공개
서회랑 서편 발굴서 확인
6cm크기, 유례없는 유물

경주 황룡사지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금동봉황장식 자물쇠'가 출토됐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신라 사찰 학술조사연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황룡사 서회랑 서편지역 발굴조사 성과'를 11월 25일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경주 황룡사지(사적 제6호)는 지난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금당지와 목탑지 등이 위치한 중심구역과 강당 북편지역 등에 대한 발굴을 진행한 바 있다. 서회랑 서쪽지역은 당시 조사단 사무실이 위치했던 장소로, 사역 내 유일하게 발굴하지 못해 미조사 지역으로 남아있던 곳이다. 그동안 서회랑 서쪽지역은 금당, 목탑 등이 위치한 예불공간과는 달리 승려의 생활공간이나 사찰 운영과 관련된 시설 등이 위치했을 것으로 막연히 추정해왔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18년부터 서회랑 서쪽(약 8700㎡)의 미조사 구역 중 북쪽을 우선적으로 발굴했다. 발굴결과, 통일신라~고려 시대에 이르는 건물지 · 배수로 · 담장지 · 폐와구덩이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됐다. 특히, 건물지는 상층에 고려, 하층에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가 중복하고 있어 황룡사 외곽의 공간구성이나 건물 배치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동봉황장식 자물쇠 모습이 온라인으로 공개됐다. 사진은 ①자물쇠 금동장식 ②확대해서 본 봉황장식 ③자물쇠 전체 모습

서회랑에서 서쪽으로 약 9m 떨어진 곳에서는 남북방향으로 조성된 35.5m 길이의 고려 시대 담장도 확인됐다. 길이 30~50㎝ 되는 사각형(방형) 석재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대형 암키와 조각을 여러 단 쌓아 수평을 맞춘 후 다시 상부에 석재나 벽돌을 올리는 방식으로 축조됐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삼국~고려 시대에 사용된 기와류, 토도류, 금속유물 등이 다수 출토됐다. 특히, 금동제 · 철제 자물쇠 3점이 주목된다. 넓지 않은 조사구역 내에서 통일신라 · 고려 시대 자물쇠 3점이 출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서회랑 외곽공간의 기능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 기초층에서 출토된 길이 6cm의 금동봉황장식 자물쇠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매우 특징적인 유물로 평가된다"면서 "주조로 제작된 금동자물쇠는 봉황의 비늘이나 날개 깃털 등의 문양을 세밀하게 표현해 매우 정성스럽게 만든 귀중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고성 옥천사 괘불 보물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사찰 경전 목판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대형불화인 고성 옥천사 괘불과 이를 담은 함, 쌍계사 소장 목판,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 김 씨의 글씨 등 5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은 1808년(순조 8) 수화승 평삼(評三)을 비롯해 18명의 화승들이 참여해 제작한 것으로, 20폭의 화폭을 붙여 높이 10m 이상 크기로 만든 대형불화다. 도상(圖像)은 석가여래 삼존과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6존의 부처를 배치한 간결한 구성이다. 화기에 '대영산회(大靈山會)'라는 화제가 있어 영산회 장면을 그린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수화승 평삼은 40여 년간 활동한 이력에 비해 남아 있는 작품이 약 11점으로 많지 않지만, 이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는 그가 본격적으로 수화승이 되어 17명의 대단위 화승들과 합작해 제작한 대표작 중 하나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 · 일 장애인불자 詩로 국제교류

보리수아래, 아시아공동시집 발간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는 최근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 발간 세 번째인 '한국 · 일본편-우리가 바다 건너 만난 것은'을 출간했다. 이번 시집은 2017년 미얀마, 2018년 베트남 공동시집에 이은 세 번째 시집으로, 장애인들의 재능개발 및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공동시집은 불교계는 물론, 장애인 단체 중에서도 유일한 국제교류 사례다. 이에 장애인들의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불교계에서 재능 있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알려 인식 개선을 돕고, 나아가 한국 장애인들의 활동을 아시아국가에 알리고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집에는 한 · 일 장애시인 8명의 작품 42여 편(번역본까지 84편)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수록됐으며, 한국장애인예술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비용 일부를 후원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원력 결집불사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 (1통화, 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 (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